기획예산처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4. 29.(수) 13:30

박홍근 장관, 재정정책 상시소통의 문을 열다.

- 박홍근 장관,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개최
- 타운홀 미팅에 연이어 민간 전문가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
- 정례회의를 넘어 장관과 민간위원 간 단체 대화방 개설로 상시 소통채널 마련

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9일(수) 12시,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는 전날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 이어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- 민간 간 소통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<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6.4.29일(수) 12:00 /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
- 참석: 기획예산처 장관, 예산실장, 예산총괄심의관,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9명

* 안일환, 박정수, 원숙연, 탁성한, 손지원, 이상현, 유민상, 김동호, 양주영

박 장관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들에게 전날 있었던 타운홀 미팅의 주요 논의내용을 공유하며, “민간 전문가,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정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,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”고 밝혔다. 또한, “재정정책은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이 된다”고 언급하며, 정부-민간 간 소통·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.

아울러, 박 장관은 “재정정책자문회의가 국가재정의 핵심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-민간 간 소통 창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”고 평가하며, 그간 민간위원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재정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다만, 박 장관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, 보다 적극적인 소통·협력 또한 당부하였다. “최근 정책환경의 변화의 폭과 속도가 어느 때보다 크고 빠른 상황에서, 연 2~4차례 정례 회의만으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”고 지적하며, 여느 때보다 정부-민간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이와 관련하여 “재정정책자문회의도 정례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”이며, 그 시작으로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. 아울러, 간담회 이후에도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단체 대화방을 개설·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,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.

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제도개선, 중점 투자방향 등 재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자유롭게 논의하였다. 박 장관은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물론, 이후 단체 대화방에 제시된 내용들까지 면밀히 살펴 ’27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소통협력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현 (044-214-24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민 (sseung513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